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023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 수상자 발표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오이스터에이블’ 대상 지속가능성어워드 수여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23 갈라 디너, 지속가능성 어워드 수여와 함께 행사 성공리 개최



(왼쪽부터) ▲퍼 스테니우스 ECCK 부회장, ▲이은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홍보부 상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CEO, ▲데이비드 유태승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대표, ▲배태관 오이스터에이블 대표, ▲프랭크 리즈버만 GGGI 사무총장(사진제공: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23년 11월 13일(월), 서울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11월 10일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제 2회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ECCK Sustainability Awards)”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와 다양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는 올 한 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유럽 및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알리고, 향후 더 많은 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는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기업들의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총 37개 회사가 참여했다. 평가는 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비전, ▲혁신, ▲투자, ▲협업 그리고 ▲효과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했고, 총 9개의 회사가 본선에 올라 그간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았으며 최종적으로 3개 회사가 부문 별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여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수여하는 '그린스텝' 어워드는 재활용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손쉽고 재미있는 자원 순환 활동을 이끌어낸 기후 테크 스타트업 '오이스터에이블'에게 돌아갔다.

탄소 감축, 공기 정화, 청정 에너지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낸 기업에게 주는 '블루 호라이즌' 어워드는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COP Korea) 가 받았다. COP Korea 는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기업인 코펜하겐 인프라 스트럭처 파트너스 (CIP)의 해상풍력사업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투자 및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국내 공급망 및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 학계 및 지역 사회와의 지식 교류 및 상생 노력, 환경보호 등에 대한 노력이 함께 인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지속 가능성 정책을 펼친 기업에게 수여하는 골드스타 어워드는 독일의 완성차 그룹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특히 국내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환경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퍼 스테니우스 ECCK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오늘날 모든 기업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강력한 협력과 기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로 2회 째를 맞이한 지속가능성 어워드 발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21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주요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를 신설하고 유럽 및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

1. 2023년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 수상자 명단

그린스텝 어워드: 오이스터에이블(Oysterable)

오이스터에이블은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AIoT 자원순환 인프라와 탄소 및 순환추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다. 페트, 병, 캔 등의 재활용품과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의 회수 및 순환을 만드는 무인인프라 ‘랄라루프’와 리워드 앱 ‘오늘의 분리수거’를 운영하고 있다. 오이스터에이블의 솔루션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민 참여를 혁신적인 기술로 편리하게 만들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2023년 10월 기준, 어플리케이션 누적 사용자는 약 8.5만명, 랄라루프 솔루션은 국내 800여대가 설치되어 있다. 오이스터에이블은 Scope 3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회수 및 추적관리를 해결하여 탄소중립과 폐기물 저감을 위해 성공사례를 만들며 한국 내 5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블루홀라이즌 어워드: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Copenhagen Offshore Partners Korea)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COP 코리아)는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사인 COP의 한국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덴마크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가 및 국내에서 영입된 해상 풍력 분야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COP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 운용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 CIP)와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CIP의 해상풍력사업 개발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상업 규모 고정식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 미국, 영국, 호주, 그리스, 대만, 일본,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

골든스타 어워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Mercedes-Benz Korea)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대표이사 사장 마티아스 바이틀)는 끊임없는 혁신과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 법인으로 2003년 1월 1일 출범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칼 벤츠와 고틀립 다임러가 각각 설립한 회사가 1926년 자동차 생산 혁명을 목표로 합병하며 탄생했다. 칼 벤츠의 “발명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와 고틀립 다임러의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는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개발과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전국 총 64개 공식 전시장 및 77개 공식 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장기적인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11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의 약속’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Sustainability Awards) 소개

유럽연합과 한국은 각각 2019 년과 2020 년에 그린딜(Green Deal)을 공식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속가능성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약 400 개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또한 2021 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주요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22 년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를 신설하고 유럽 및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다. 2022 년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를 맞이한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는 7 월부터 10 월 중순까지 기업들의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총 37 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아래의 세 개 분야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시상하였다.

- 그린 스텝 Green Steps: 가장 뛰어난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여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시상
- 블루 호라이즌 Blue Horizons: 가장 뛰어난 CO2감소, 공기정화, 청정에너지 활동을 보여준 기업에게 시상
- 골든 스타 Golden Stars: 가장 뛰어난 ESG/다각도의 지속가능성 정책 및 활동을 보여준 기업에게 시상

3.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 년 설립된 협회이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 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 유럽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약 40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다.